



운명적인, 너무나 운명적인

부평 아비앙또 과자점

가업을 잇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들은 훌쩍 군대로 떠나 버렸다. 상심한 아버지의 얼굴을 애써 외면한 채 ... 그리고도 한동안 부자의 실갱이는 계속 되었다. 제과업에 대한 금지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 힘든 그 일을 굳이 자식에게까지 승계하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아들. 그렇게 밀고 당기는 지루한 싸움 끝에 어느날 아들은 아버지 곁에 돌아왔다. 어쩌면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핏줄의 진한 부름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라고 말한다. 용모며 생활방식까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 받는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벽은 있다. 프로이트는 ‘외디푸스 콤플렉스’라는 학설을 통해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적 욕망을 간파했었다 성장하는 아들에게 어느 순간,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과 선망의 대상만은 아닌 것이다. 아버지 또한 그가 넘어서야 할 존재로 비춰지는 객관화의 시기가 있는 법이다. 어쩌면 그런 운명이 인류를 발전시켜 온 진정한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른다. 인천시 부평구「아비앙또과자점」박창수(29)씨에게도 한동안 그런

시기가 있었다. 가업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에게서 한사코 벗어나려던 시절이. 제과업은 어린 시절 그가 꿈꾸었던 미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가업 승계 거부하고 입대 택한 아들

어려서부터 그는 기계 만지기를 좋아했다. 무엇이든 낱알이 뜯어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를 두고 어른들은 “나중에 일류 기술자가 되겠다”고 너털 웃음을 지었다. 취미는 소질로 발전했다. 막연히 엔지니어를 동경하던 창수 씨가 굳이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재미 있었다”는 창수 씨의 표현처럼 학창 시절 그는 진로

에 대해 별다른 갈등없이 보냈다. 취미를 갖게 된 자동차 정비에 폭 빠져 하교길에는 기름칠로 범벅이 되어 돌아오기 일쑤였다. 덕분에 남들 다 겪는 사춘기마저 그에게는 그저 밋밋하게 지나가 버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창수씨는 생각지도 않게 대학입시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겪어본 크나큰 시련이었다. 꿈을 보류해야 하는 낯선 현실이 그저 암담할 뿐이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었다. 1년 후를 기약하며 채수생의 신분으로 돌아와 각오를 다잡았다.

그런 창수씨에게 아버지 박익선(54)씨의 제의는 뜻밖이었다. 「아비양또」를 물려 받아 가업을 이어달라는 것이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제과일에 몸 바쳐온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과업은 아버지만의 인생이었다. 자신에게는 그가 꿈 꾸 온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부자간의 실랑이는 계속되었다. 예상 밖으로 아버지의 강요 또한 완강했다. 자신에게 굳이 것처럼 힘든 일을 계승시키려는 아버지를 창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밀고 당기는 실랑이에 지친 그가 때마침 날아온 소집영장에 응하는 것으로 길고 긴 입씨름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자신이 돌아올 때 쫓으면 아버지의 고집도 사그라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30개월이란 시간은 훌쩍 흘렀다. 민간인의 신분을 돌아 온 창수 씨는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는 대신 자동차 정비소에 일터를 두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딱히 제과일이 싫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다른 곳에 있다는 확신이 그를 사로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지루한 실랑이가 그들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집은 집요했다. 그리고 거듭되는 권유에 못 이긴 창수 씨는 어느날 거짓말처럼 손을 들고 말했다.

“아비양또” 땀으로 일구어 낸 아버지의 꿈

부친 박익선 씨와 제과업은 평생을 끈끈한 인연으로 이어져 왔다. 원래 그의 고향은 황해도 웅진군이였다. 고향을 떠나 낯선 인천 땅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실향민 가족의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 7남매의 장남인 박익선씨는 생계를 돕기 위해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다. 구두닦이부터 껌 가게 장사까지 안 해 본일이 없었다. 어린 그에게도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는 일은 절박한 현실이였다.

열 여덟이 되던 해, 그는 주위의 소개로 한 제과점에 발을 들여 놓았다. 말이 좋아 견습생이지 그에게 선선히 제과기술

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아무도 없었다. 공장 안의 잔심부름이 모두 그의 차지였다. 어린 마음에 “빵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조차도 그림의 떡이였다.

“한번은 막 구워져나온 빵 하나를 감춰 화장실로 달려 갔지요. 허겁지겁 빵을 베어물고 있는데 밖에서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겠지요. 대답은 해야겠는데 입속엔 하나가득 빵을 물고 있으니 도리가 있나요. 억지로 빵을 다 삼키고 나오니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흥건하더군요.”

당시 기술자들은 제과기술에 대한 보안이 철저했다. 혹여 견습생들이 볼까봐 배합까지도 반드시 뒤돌아서서 감추기 일쑤였다. 그런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가 온전히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타고난 그의 눈썰미와 부지런함 덕분이였다. 69년 꿈에 그리던 자신의 제과점을 열게 되기 까지 그는 7년여를 기술에 대한 욕심하나로 질치부심하며 견디었다.



◀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이자 후원자인 박익선, 박창수 씨 부자.

▼ 「아비양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많다. (왼쪽부터) 박익범, 박익화씨는 박창수씨의 숙부이기도 하다.



◀ 「아비양또」, 젊은 박창수씨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곳이다.

박익선 씨가 현 위치인 부평5동에 자리를 잡은 것은 1982년 이었다. 처음엔 “새독일빵집”으로 문을 열었다가 91년 아들 창수 씨와 실강이가 이어질 무렵 “다시 만납시다”라는 프랑스어「아비양또」로 상호를 교체 했다.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거금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까지 새로 바꿀 무렵이었다.

“아들에게도 저 나뉠의 꿈이 있었겠지요. 가업을 잇도록 종용한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나뉠대로 나는 제과업의 전망이 아주 밝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더욱이 내가 가진 모든 경험을 물려줄 수 있으니 그만큼 아들에게도 안정적인 직업일테구요.”

박익선 씨는 지금도 아들 창수 씨에게 가업을 잇도록 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족 모두가 제과인, 한마음 한 뜻으로

실상 박창수 씨에게는 부친 말고도 또 다른 후원자가 많이 있다. 「아비양또」의 모든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술인이 다름 아닌 그의 여섯째(박익범·38), 일곱째(박익화·35) 숙부인 까닭이다. 이제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셋째 숙부도 얼마 전까지 제과업에 몸을 담았었다. 물론 매장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아내 김정현(24)씨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매장을 놀이터 삼아 뛰노는 귀여운 딸 하얀(3)이가 누구보다 큰 힘이 돼주지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명도 있는 유명점포로 키워낼 생각입니다. 아버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아비양또에 제 인생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한 가족인 「아비양또」는 높은 제품력으로 주변 고객들 사이에 평판이 자자하다. 기술인의 이직이 없으니 자연히 맛과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생크림 케이크가 보편화되기 전에도 아비양또는 인근 업소보다 한 발 앞서 생크림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그것 또한 가족 모두가 업계 흐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아비양또」만의 앞선 정보력 덕분이었다.

아비양또에 들어선 고객은 평균 서너차례의 인사를 듣게 된다. 드나드는 고객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창수 씨에게서는 어느덧 듬직한 경영자의 여유를 엿볼 수 있다. 「아비양또」를 찾는 모든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 박익선 씨의 당부다. 그는 잊지 않고 있다.

그런 창수 씨에게도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 역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면서 상권이 많이 위축되었다. 인지도가 높아 아직 그리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점책을 유도하기 위해 대폭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중이다. 신세대 취향에 어울리는 심플한 매장분

위기는 물론, 작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의 확장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아비양또」를 보다 발전시켜 분점 형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그다지 무리한 계획은 아닐성 싶다고 그는 자신한다.

핏줄이 이어준 부자의 가업잇기


창수 씨는 소문난 축구광이다. 지역 제과인들로 구성된 과우번영회 축구단에서 그는 왼쪽 공격수를 맡아 경기시간 내내 운동장을 훑고 다닌다. 아직 젊은 체력이라 하루 두 게임을 뛰어도 힘든 줄을 모른다. 간혹 부평으로 원정 온 다른 축구단들이 번번히 창수 씨의 강슛에 골문을 내주고마는 것도 그의 지칠줄 모르느 체력 때문이다. 스물 아홉, 창수 씨에게는 그렇게 저돌적으로 뛰어야 할 많은 날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창수 씨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토록 사력을 다해 투지를 불사르는 것이진도 모른다.

지난날 그가 그토록 거부했던 가업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지금, 창수 씨는 아버지의 모든 기대가 자신에게로 이어져 있음을 느낀다. 부자의 진한 사랑이, 함께 이루어야 할 많은 꿈들이 이제 창수씨의 어깨 위에 고이 접혀 있다.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이자 후원자인 박익선 씨 부자는 가게를 마친 저녁 무렵 이따금 가까운 포장마차로 걸음을 옮긴다. 이제 어엿한 한 아이의 아버가 된 아들 창수 씨에게 아버지로서 새삼 해야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나누는 소주 한 잔의 기쁨 속에서 가슴 뿌듯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불수록 아들 창수 씨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쑥 빼닮았다. 그 옛날 제과기술 하나에 젊음을 걸었던 그의 불같은 고집까지도.

그는 가만히 아들의 손을 쥐어 본다.

거기 핏줄 속에 흐르는 파스 한 온기는 분명 낮설지 않다. 

〈글/이종원〉



▲박창수 씨에게도 가업승계를 망설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내와 함께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